



# 2026-02-06 머니레터, 디지털의 환상이 걷힌 자리에 남은 '진짜 이익'의 무게

2026-02-06 작성자: siwoo

이 글은 2026-02-06 시장을 분석한 글입니다.

## 목 차



- 1. 2026-02-06 시장 분석
  - 1.1 매크로의 변심: 베센트와 워시가 설계하는 '강한 미국'의 역습
  - 1.2 디지털의 배신: AI 소프트웨어 무용론과 '사스포칼립스(SaaS-pocalypse)'
  - 1.3 하드웨어의 고뇌: 400조 투자, 약속인가 족쇄인가
  - 1.4 노동 시장의 냉각: 'K자형' 경기 양극화와 침체의 유령
  - 1.5 유동성의 역류: 외국인의 6조 투매와 개미들의 8

- 1. 2026-02-06 시장 분석
  - 1.1 매크로의 변심: 베센트와 워시가 설계하는 '강한 미국'의 역습
  - 1.2 디지털의 배신: AI 소프트웨어 무용론과 '사스포칼립스(SaaS-pocalypse)'
  - 1.3 하드웨어의 고뇌: 400조 투자, 약속인가 족쇄인가
  - 1.4 노동 시장의 냉각: 'K자형' 경기 양극화와 침체의 유령
  - 1.5 유동성의 역류: 외국인의 투매와 개미들의 8조 방
  - 1.6 지정학적 전략 자산: 동맹(MSP)과 한국의 전면
- 2. 2026-02-06 투자 전

# 1. 2026-02-06

## 시장 분석

### 1.1 매크로의 변심: 베센트와 워시가 설 계하는 '강한 미 국'의 역습

지지난주까지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환율 안정 기조를 보이던 시장의 약속이 단 한 명의 발언으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스캇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항상 강달러 정책을 지지하며, 타국 통화 가치 부양을 위한 개입은 절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1분기 5,3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 발행을 앞두고 글로벌 유동성을 미국 국채 시장으로 강제로 끌어들이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입니다.

여기에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인 케빈 워시의 매파적(Hawkish) 성향이 더해지며 시장은 '워시 쇼크'에 직면했습니다. 양적완화(QE)의 시대적 효용이 다했음을 주장해온 그의 등장은 지난 10년간 자산 가격을 떠받쳐온 '무제한

- 1. 2026-02-06 시장 분석
  - 1.1 매크로의 변심: 베센트와 워시가 설계하는 '강한 미국'의 역습
  - 1.2 디지털의 배신: AI 소용돌이, 무용론과 '사스포칼립스'(Apocalypse)
  - 1.3 하드웨어의 고뇌: 400억 달러의 약속인가 족쇄인가
  - 1.4 노동 시장의 냉각: 'K-패널티' 양극화와 침체의 유령
  - 1.5 유동성의 역류: 외국인 투자와 개미들의 8조 방벽
  - 1.6 지정학적 전략 자산: 동맹(MSP)과 한국의 전면전
- 2. 2026-02-06 투자 전

유동성 공급'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자본은 이제 신흥국과 위험 자산에서 이탈하여 가장 높은 안전 수익을 보장하는 미국 본토로 회귀하는 거대한 '머니 무브(Money Move)'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조정을 넘어선 유동성의 구조적 재편을 시사합니다.

## 1.2 디지털의 배신: AI 소프트웨어 무용론과 '사스포칼립스(SaaS-pocalypse)'

이번 폭락의 중심에는 '소프트웨어 무용론'이라는 거대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엔트로픽(Anthropic)이 출시한 '클로드 코워크'와 같은 자동화 에이전트 AI는 이제 단순한 보조 도구를 넘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전 과정을 대체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구독형 소프트웨어(SaaS) 기업들이 구축해온 '해자'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AI가 스스로 코딩하고 운영까지 한다면, 왜 굳이 비싼 구독료를 내고 기존 소프트

### • 1. 2026-02-06 시장 분석

- 1.1 매크로의 변심: 베센트가 설계하는 '강한 미국'의 리스크
- 1.2 디지털의 배신: AI 소프트웨어 무용론과 '사스포칼립스(SaaS-pocalypse)'
- 1.3 하드웨어의 고뇌: 400억 달러의 약속인가 족쇄인가
- 1.4 노동 시장의 냉각: 'K자' 양극화와 침체의 유령
- 1.5 유동성의 역류: 외국인 투자매와 개미들의 8조 방아
- 1.6 지정학적 전략 자산: 동맹(MSP)과 한국의 전면

### • 2. 2026-02-06 투자 전

웨어를 써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의구심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라클(-7%), 팔란티어(-6%), 클라우드스트라이크(-9%) 등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는 하루 만에 대폭락을 기록했습니다. 과거 AI의 최대 수혜주로 칭송받던 이들이 이제는 AI 혁신의 가장 큰 ‘희생양’으로 재평가(Re-rating)되는 구조적 변화가 발생한 것이며, 이는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의 밸류에이션 하향 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1.3 하드웨어의 고 뇌: 400조 투자, 약 속인가 족쇄인가

빅테크들의 자본 지출(Capex) 경쟁은 이제 공포의 영역으로 진입했습니다. 구글(알파벳)은 2026년 자본 지출을 최대 1,850억 달러로 증액하겠다고 발표했고, 아마존 역시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 구축에만 올해 총 2,000억 달러(한화 약 260조 원)를 투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두 기업의 투자 합계액만 400조 원을 상회하며, 이는 시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1. 2026-02-06 시장 분석
  - 1.1 매크로의 변심: 베센트스가 설계하는 ‘강한 미국’의 리스크
  - 1.2 디지털의 배신: AI 소용돌이, 무용론과 ‘사스포칼립스’(Apocalypse)
  - 1.3 하드웨어의 고뇌: 400조 투자, 약속인가 족쇄인가
  - 1.4 노동 시장의 냉각: ‘K자’ 양극화와 침체의 유령
  - 1.5 유동성의 역류: 외국인의 투매와 개미들의 8조 방출
  - 1.6 지정학적 전략 자산: 동맹(MSP)과 한국의 전면전
- 2. 2026-02-06 투자 전

문제는 이러한 천문학적인 투자가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 증대(ROI)로 이어지는 속도가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AMD의 실적 발표는 이러한 의구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매출은 성장했으나 4분기 실적이 일회성 수익에 기댄 '착시 현상'이었음이 드러났고, 중국 매출 가이드스의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주가는 17% 폭락했습니다.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과연 인프라 구축 이후에 팔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가?"라는 물음이 빅테크의 주가를 짓누르는 족쇄가 되어, 기술주 전반의 '피크 아웃' 우려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 1.4 노동 시장의 냉각: 'K자형' 경기 양극화와 침체의 유령

미국 노동 시장에서도 심상치 않은 균열이 포착되었습니다. 12월 구인 건수(JOLTS)는 654만 건을 기록하며 2020년 이후 최저치로 급감했습니다. 동시에 1월 기업들의 감원 발표 규모는 10만 건을 상회하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전체 감원의

- 1. 2026-02-06 시장 분석
  - 1.1 매크로의 변심: 베센트 대통령이 설계하는 '강한 미국'의 양극화
  - 1.2 디지털의 배신: AI 소용돌이와 무용론과 '사스포칼립스'(pocalypse)
  - 1.3 하드웨어의 고뇌: 400억 달러의 약속인가 족쇄인가
  - 1.4 노동 시장의 냉각: 'K자형' 경기 양극화와 침체의 유령
  - 1.5 유동성의 역류: 외국인 투자매와 개미들의 8조 방
  - 1.6 지정학적 전략 자산: 동맹(MSP)과 한국의 전면
- 2. 2026-02-06 투자 전

약 7%가 'AI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로 확인되었다는 사실은 기술의 발전이 고용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거시 지표는 견조해 보이지만 실질적인 고용 현장은 얼어붙는 'K자형'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고용이 불안정해지면, 빅테크가 구축한 AI 인프라의 최종 수요처인 일반 소비자와 중소기업들의 구매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프라는 과잉 공급되고 수요는 침체되는 '공급 과잉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경기 침체 (Recession)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는 연준의 금리 정책 결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1.5 유동성의 역류: 외국인의 6조 투매 와 개미들의 8조 방어전

한국 시장은 전례 없는 수급 전쟁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약 5조 원을 포함해 총 6조 원 규모의 매도 폭

- 1. 2026-02-06 시장 분석
  - 1.1 매크로의 변심: 베센트 대통령이 설계하는 '강한 미국'의 의지
  - 1.2 디지털의 배신: AI 소용돌이, 무용론과 '사스포칼립스'(Apocalypse)
  - 1.3 하드웨어의 고뇌: 400억 달러의 약속인가 족쇄인가
  - 1.4 노동 시장의 냉각: 'K자형' 양극화와 침체의 유령
  - 1.5 유동성의 역류: 외국인 투매와 개미들의 8조 방어전
  - 1.6 지정학적 전략 자산: 동맹(MSP)과 한국의 전면전
- 2. 2026-02-06 투자 전

탄을 투하했습니다. 강달러 기조와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산 자동차 25% 관세 부과 위협이 결합되면서, 외국인 자금에 한국은 더 이상 '성장하는 시장'이 아닌 '가장 먼저 현금을 회수해야 할 창구'로 전략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5.8% 급락하며 16만 원 선이 붕괴된 것은 이러한 유동성 엑소더스의 단면을 상징합니다.

반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하루 만에 약 8조 원(7조 6,000억 원 이상)의 물량을 받아내는 역대급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과거 폭락장에서의 학습 효과를 바탕으로 한 '공격적 저가 매수'이자, 월요일 폭락 당시의 승리 기억을 재현하려는 처절한 사투입니다. 하지만 시장을 이끌 중심점(장군)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의 자금력만으로 외국인의 구조적 이탈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극단으로 치닫게 하고 있습니다.

## 1.6 지정학적 전략

### 자산: 희토류 동맹

- 1. 2026-02-06 시장 분석
  - 1.1 매크로의 변심: 베센트 행정부가 설계하는 '강한 미국'의 리스크
  - 1.2 디지털의 배신: AI 소용돌이, 무용론과 '사스포칼립스'(Apocalypse)
  - 1.3 하드웨어의 고뇌: 400억 달러의 약속인가 족쇄인가
  - 1.4 노동 시장의 냉각: 'K자'의 양극화와 침체의 유령
  - 1.5 유동성의 역류: 외국인 자금의 투매와 개미들의 8조 방벽
  - 1.6 지정학적 전략 자산: 희토류 동맹(MSP)과 한국의 전면전
- 2. 2026-02-06 투자 전

# (MSP)과 한국의 전면 부상

매크로와 기술주의 혼돈 속에서도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에서 한국이 의장국을 맡으며 희토류 공급망 재편의 핵심 파트너로 낙점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세계적인 제련 및 가공 기술력을 활용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고려아연의 테네시 재련소 투자 사례처럼,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재련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은 향후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에서의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증시 전체는 흔들리고 있지만, 이러한 국가 전략적 가치의 상승은 장기적인 펀더멘털의 강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반내곤(구조조정)' 정책과 맞물려 한국의 소재·부품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 1. 2026-02-06 시장 분석
  - 1.1 매크로의 변심: 베센트가 설계하는 '강한 미국'의
  - 1.2 디지털의 배신: AI 소무용론과 '사스포칼립스(pocalypse)'
  - 1.3 하드웨어의 고뇌: 400억의 약속인가 족쇄인가
  - 1.4 노동 시장의 냉각: 'K자' 양극화와 침체의 유령
  - 1.5 유동성의 역류: 외국인 투자와 개미들의 8조 방
  - 1.6 지정학적 전략 자산: 동맹(MSP)과 한국의 전면
- 2. 2026-02-06 투자 전



### 투자 전

---

## 2.1 포지션 제안: 인내심 있는 관망과 현금 확보 (Dash for Cash)

현재 시장은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 성장주 전반의 밸류에이션을 다시 산정하는 '구조적 재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NH투자증권 등이 코스피 목표치를 7,300포인트로 상향하는 등 장기 전망은 여전히 밝지만,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경색의 공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PBR 밴드 하단이라는 지표상의 수치만 믿고 성급히 진입하기보다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멈추고 환율이 1,450원 선 아래로 안정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당분간은 현금 비중을 30~50% 이상 유지하며 시장의 '바닥'이 아닌 '안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 1. 2026-02-06 시장 분석
  - 1.1 매크로의 변심: 베센트가 설계하는 '강한 미국'의 리스크
  - 1.2 디지털의 배신: AI 소용돌이와 무용론과 '사스포칼립스'(Apocalypse)
  - 1.3 하드웨어의 고뇌: 400억 원의 약속인가 족쇄인가
  - 1.4 노동 시장의 냉각: 'K-패러독스' 양극화와 침체의 유령
  - 1.5 유동성의 역류: 외국인 투자와 개미들의 8조 방벽
  - 1.6 지정학적 전략 자산: 동맹(MSP)과 한국의 전면전
- 2. 2026-02-06 투자 전

## 2.2 주목할 밸류체인: HBM4 공정 전환과 실적 기반의 물리적 실체

하드웨어 섹터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합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HBM4 생산 체제 전환은 기존 제품의 누수를 감수하더라도 2026년 2월 양산이라는 미래 수주 물량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공정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호재성 누수' 구간은 장기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APR)이나 바이오(셀트리온)처럼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시장에서 실질적인 매출 성장 데이터(ROI)가 확인되는 '숫자가 찍히는' 섹터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하십시오. 특히 파두처럼 우주 항공과 반도체 모멘텀을 동시에 확보한 특수 테마는 변동성 장세에서도 독자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 2.3 리스크 헷지: 정책 불확실성과 공급발 인플레이션 대비

- 1. 2026-02-06 시장 분석
  - 1.1 매크로의 변심: 베센트 대통령이 설계하는 '강한 미국'의 영향
  - 1.2 디지털의 배신: AI 소용돌이와 무용론과 '사스포칼립스'(Apocalypse)
  - 1.3 하드웨어의 고뇌: 400억 달러의 약속인가 족쇄인가
  - 1.4 노동 시장의 냉각: 'K-인력'의 양극화와 침체의 유령
  - 1.5 유동성의 역류: 외국인 투자와 개미들의 8조 방패
  - 1.6 지정학적 전략 자산: 동맹(MSP)과 한국의 전면전
- 2. 2026-02-06 투자 전

하반기 연준 의장 교체와 맞물린 정책 불확실성은 6개월간의 '수익률 가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바클레이즈 보고서에 따르면 연준 의장 교체 초기 시장 수익률은 역사적으로 부진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폴리실리콘 등의 가격 상승은 저물가 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산의 일부를 달러 베이스 자산이나 금리 변동에 강한 단기 채권으로 배분하고, 하방 압력 트리거인 인플레이션 재점화 여부를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등을 통해 면밀히 관찰하십시오. 아르테미스 2호 발사 연기와 같은 기술적 이벤트 지연 리스크도 포트폴리오의 변동성 요소로 관리해야 합니다.

- 1. 2026-02-06 시장 분석
  - 1.1 매크로의 변심: 베센트 의장이 설계하는 '강한 미국'의 의미
  - 1.2 디지털의 배신: AI 소용돌이, 무용론과 '사스포칼립스'(pocalypse)
  - 1.3 하드웨어의 고뇌: 400억 달러의 약속인가 족쇄인가
  - 1.4 노동 시장의 냉각: 'K자' 양극화와 침체의 유령
  - 1.5 유동성의 역류: 외국인 투자매와 개미들의 8조 방아
  - 1.6 지정학적 전략 자산: 동맹(MSP)과 한국의 전면
- 2. 2026-02-06 투자 전

### 3. 2026-02-06

## 결론

오늘의 서사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는 “기대감이라는 디지털의 환상이 걷힌 자리에 남은 것은 결국 ‘실질 이익’이라는 물리적 무게”라는 사실입니다. 젠슨 황은 소프트웨어 무용론을 “비논리적”이라고 비판하며 낙관론을 펼쳤지만, 시장은 이미 리더의 화

려한 수사학보다 기업의 대차대조표와 실질적인 현금 흐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향후 1주일간 가장 유심히 살펴 봐야 할 이벤트는 연준 제퍼슨 부의장의 발언과 고용 지표의 추가 악화 여부입니다. 만약 고용 시장의 냉각이 가파르게 진행된다면, 연준은 정책 경로를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전까지는 유동성 경색과 밸류에이션 재조정이라는 고통스러운 ‘옥석 가리기’ 과정이 지속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투자자는 이제 ‘성장의 환상’이 아닌 ‘생존의 실적’을 찾아 나서야 할 때입니다.

## 3.1 투자자를 위한 용어 사전

- **Capex (자본 지출):** 기업이 미래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기계, 설비, 데이터 센터 등에 투자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최근 빅테크들이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돈이 바로 이것입니다.
- **Saa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를 PC에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구독료를 내고 사용

### • 1. 2026-02-06 시장 분석

- 1.1 매크로의 변심: 베센트 부의장이 설계하는 ‘강한 미국’의 의의
- 1.2 디지털의 배신: AI 소용돌이, 무용론과 ‘사스포칼립스’(Apocalypse)
- 1.3 하드웨어의 고뇌: 400억 달러의 약속인가 족쇄인가
- 1.4 노동 시장의 냉각: ‘K자’ 양극화와 침체의 유령
- 1.5 유동성의 역류: 외국인 투자매와 개미들의 8조 방
- 1.6 지정학적 전략 자산: 동맹(MSP)과 한국의 전면

### • 2. 2026-02-06 투자 전

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오  
라클이나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 **매파적 (Hawkish):** 중앙  
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리거나 돈줄을  
죄려는 강경한 태도를 보  
이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  
니다. 반대말은 '비둘기파  
적'입니다.
- **HBM4 (4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AI 연산에 특화된  
초고속 메모리 반도체의  
최신 규격입니다. 처리 속  
도가 비약적으로 빨라 AI  
서버의 핵심 부품으로 꼽  
힙니다.
- **세온 (Sell-on):** 호재성 실  
적이나 뉴스가 발표되었을  
때 기대감이 소멸하며 오  
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현  
상을 말합니다. "재료 소  
멸"이라고도 부릅니다.
- **반내곤(反內捲) 정책:** 중국  
기업들끼리의 과도한 제살  
깎아먹기식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추  
진하는 산업 구조조정 정  
책을 뜻합니다. '내곤(치열  
한 경쟁)'에 '반(반대)'한다  
는 의미입니다.
- **JOLTS (구인·이직 보고  
서):** 미국 노동부가 매달  
발표하는 지표로, 구인 건

## • 1. 2026-02-06 시장 분석

- 1.1 매크로의 변심: 베센트  
가 설계하는 '강한 미국'의  
영향
- 1.2 디지털의 배신: AI 소  
무용론과 '사스포칼립스(  
pocalypse)'
- 1.3 하드웨어의 고뇌: 400  
억 달러의 투자와 수익의  
약속인가 족쇄인가
- 1.4 노동 시장의 냉각: 'K  
양극화'와 침체의 유령
- 1.5 유동성의 역류: 외국  
투매와 개미들의 8조 방  
어
- 1.6 지정학적 전략 자산:  
동맹(MSP)과 한국의 전면

## • 2. 2026-02-06 투자 전

수와 해고 인원 등을 보여  
주어 노동 시장의 건강 상  
태를 가늠하는 척도가 됩  
니다.

- **ROI (투자 자본 수익률):**  
투자한 금액 대비 얼마만  
큼의 이익을 얻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최  
근 시장은 AI 투자에 대한  
이 ROI를 매우 엄격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 **MSP (핵심광물안보파트  
너십):** 희토류 등 첨단 산  
업에 필수적인 광물의 공  
급망 안정화를 위해 미국  
주도로 결성된 다자간 협  
의체입니다.
- **워시 쇼크 (Warsh  
Shock):**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 케빈 워시의 매파  
적 정책 성향이 시장에 유  
동성 경색 우려를 일으키  
는 현상을 말합니다.

---

**면책 조항 (Disclaimer)** 이 글은  
투자를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최종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글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참  
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합

- 1. 2026-02-06 시장 분석
  - 1.1 매크로의 변심: 베센트  
가 설계하는 '강한 미국'의
  - 1.2 디지털의 배신: AI 소  
무용론과 '사스포칼립스'(p  
ocalypse)
  - 1.3 하드웨어의 고뇌: 400  
약속인가 족쇄인가
  - 1.4 노동 시장의 냉각: 'K  
양극화와 침체의 유령
  - 1.5 유동성의 역류: 외국인  
투매와 개미들의 8조 방
  - 1.6 지정학적 전략 자산:  
동맹(MSP)과 한국의 전면
- 2. 2026-02-06 투자 전

니다.  
삼프로, 머니코믹스, 기릿의 주식  
노트

■ 돈, 머니레터  
< 2026-02-05 머니레터, 하드웨어의  
안보 자산화

## 댓글 남기기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로그인](#)해  
야합니다.

© 2025 siwoolim

블로그에 게시된 모든 자료는 무단 배포 및 복제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해와 협

- 1. 2026-02-06 시장 분석
  - 1.1 매크로의 변심: 베센트  
가 설계하는 '강한 미국'의
  - 1.2 디지털의 배신: AI 소  
무용론과 '사스포칼립스'(pocalypse)
  - 1.3 하드웨어의 고뇌: 400  
약속인가 족쇄인가
  - 1.4 노동 시장의 냉각: 'K  
양극화와 침체의 유령
  - 1.5 유동성의 역류: 외국  
투매와 개미들의 8조 방
  - 1.6 지정학적 전략 자산:  
동맹(MSP)과 한국의 전면
- 2. 2026-02-06 투자 전